

순천 청수골새뜰마을, 전국 새뜰사업의 모범사례로 '눈길'

국가균형발전위, 청수골새뜰마을 성공사례 전국으로 확산 생활인프라 구축·버려진 한옥 개조 마을 식당 '청수정' 운영

순천시 청수골새뜰마을이 새뜰사업의 모범 사례로 꼽히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새뜰사업의 대표적 모범사례로 불리는 '청수골새뜰마을'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청수골새뜰마을 사업지를 방문했다. 순천시는 주거 취약지역이었던 금곡동 일대를 청수골 새뜰사업으로 소방도로 개설·도시가스 공급·하수관로 정비 등 생활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히 새뜰마을형 주민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버려진 한옥을 개조한 마을 식당 '청수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양 기관 관계자는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현황과 사업운영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 이명섭 국장은 "순천 청수골새뜰마을 사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확산하여 신규 새뜰사업지에서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청수골 새뜰사업의 성공은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사업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 한 결과"라며 "이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현재 추진 중인 청수정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순환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 주관 새뜰사업에 선정 돼 5년간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년 연속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중앙부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2018년 대한민국 국토대전 특별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도시재생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양시, 중동근린공원 산책로 '새단장'

노후 시설물 정비·편의시설 추가 설치...시민 이용률 높은 공원

광양시는 공원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동근린공원 시설물 및 산책로 보수공사'를 완료했다. 중동근린공원은 아파트와 공동주택단지 가 인접하고, 인근에 중진초등학교, 백운중학교 등 학교시설이 많아 시민의 이용률이 높은 공원이다. 시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원 내 노후시설물과 배수불량 구간을 정비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산책로 390m 구간을 재포장하고, 우기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하고 정비했다. 또한, 일부 녹지구간에 야자매트를 설치

하고 우거진 수목 아래에 앉음벽을 설치해 토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고 나무 그늘에서 시민이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평소 중동근린공원을 이용하던 한 주민은 "그동안 산책로가 노후하고 빗물이 고여 걷기가 많이 불편했다"며, "공원이 새단장되어 산책하기 편하고 앉아서 쉬어갈 수 있어 좋다"며, 이번 사업에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재원 공원과장은 "시민들이 공원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여수시, '미등록 옥외고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실시

8월 12일까지...불이익 행정처분 없이 허가·신고 처리

여수시가 7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은 미등록 옥외고정광고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성화 기간 중에는 불이익한 행정처분 없이 허가·신고할 수 있다. 단,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표시방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양성화 대상은 벽면이용 간판, 돌출 간판, 지주이용 간판, 옥상 간판 등 옥외고정광고물에

한한다. 시는 미등록 광고물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안전점검 대상인 광고물의 경우 안전점검 비용만 납부하면 허가·신고 수수료는 전액 면제해준다. 신청은 여수시 도시재생과(여수시 시청동1길 23)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

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 도시재생과 광고물관리팀(☎061-659-4541)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사업이 미등록 옥외광고물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허가·신고 수수료 면제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자진신고하시기 바란다"며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철저히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기동취재본부

보성군, 전남 유일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공모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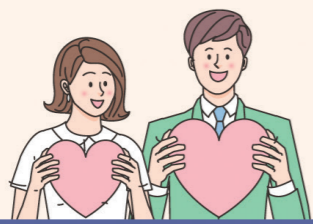
보성군은 지난 4일,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2년도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 선정으로 보성군은 2009년 준공해 운영하고 있는 조성농공단지에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핵심사업으로는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엔 확보한 사업비는 국도비 38억 원이며, 총 사업비는 48억 원이다. 보성군은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조성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필요 시설과 환경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전라남도 기반산업과와 전남테크노파크 등과 연계하여 농공단지 활성화와 대책을 논의하고 협업사업을 발굴하는 등 여러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성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마련된 복합문화센터 구상안은 1층에는 멀티 오피스, 구내식당, 북카페, 관

리사무소, 2층에는 주거형 원룸 13실과 체력 단련실을 배치했다. 특히, 주거형 원룸 신설로 타지역 출퇴근 근로자들의 지역 내 거주를 유도해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는 농공단지 내 도로와 공원 정비, 녹지공간 확충, 야간조명시설 보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낮에는 근로자 중심의 휴게공간으로, 밤에는 지역민들의 산책과 운동을 위한 일상의 힐링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현재 보성군은 농공단지가 100% 분양되어 추가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을 만큼 2차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를 이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성=김덕순기자



순천 주암면, 농촌 다문화 가족 한국요리교실 운영

순천시 주암면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중임)는 최근 다문화 가족에게 한국문화와 음식을 소개하고 한국음식을 만들어 함께 나누는 요리교실 체험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주암면 새마을부녀회 29명의 회원들은 태국, 필리핀, 일본 등 다문화가족 8세대에게 절기별 한국요리를 만들어 나갔다. 참가자들은 찰밥, 오이냉채, 여름·가을 삼색나물, 된장볶음, 고추장담기 등 매월 2회 새로운 주제로, 한국의 계절별 음식과 고유문화에 대해 배우게 된다. 순천=김승호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방임, 유기, 학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